

익수사고 4건중 1건 12세이하 소아

최근 7년간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은 익수사고 사망자가 2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 10건중 4건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돼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질병관리본부 23개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결과 2010~2016년까지 7년간 익수사고로 내원한 환자 1430명 중 293명(20.5%)이 숨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65명, 2011년 151명, 2012년 180명, 2013년 231명, 2014년 222명, 2015년 221명, 2016년 260명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익수사고 환자수와 사망자수는 남성이 966명과 223명으로 여성(474명·70명)보다 2~3배 이상 많았다.

전 연령층에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계절별로는 전체 사고의 43.6%인 623건이 여름에 집중됐다.

질병관리본부, 23개 응급실 손상환자 조사결과 전체사고 43.6% 여름 발생...야외사고 성인>소아 물놀이시 아이 방치금지 등 가이드 라인 지켜야

이러 봄 301건(21.0%), 가을 291건(20.3%), 겨울 208건(14.5%) 순이었다. 특히 전체 익수사고 4건중 1건(24.8%)이 12세 이하 소아에게서 발생했는데 절반 이상이 여름(57.3%)에 일어났다. 65세 이상은 전체 익수사고 발생의 18%였으나 사망자수는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발생장소는 바다·강·연못 등 야외장소(67.4%)와 수영장 시설(17.4%)이 주를 이뤘다.

아의장소에선 성인이 77.6%로 소아(35%)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수영장에선 반대로 12세 이하 소아가

빠진 사람 구출 시 구조자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고 빠른 구조 요청과 심폐소생술 실시 등이 중요하다. 바닷가나 강가에선 물살이나 파도, 물의 깊이를 먼저 확인하고 신발이나 물건이 떨어지면 아이는 반드시 어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웹진은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한국생활안전연합(www.safia.org)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익수 사고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 어르신에서도 많이 발생하므로 모두가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해서는 지도가 필요하다"며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 등을 통해 익수사고를 포함하여 사고나 안전과 관련한 통계를 지속 생산하고 안전수칙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계모 살인혐의 美 소년, 9년만에 무죄 석방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2009년 11세 때 아버지의 임신한 약혼녀를 엽총으로 쏘아 살해한 혐의로 1급살인죄로 복역중이던 조던 브라운(20)에 대한 판결을 뒤집고 증거불충분으로 그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정황증거들에 불과하며 어린 브라운은 잘못 한 게 없었다고 판단, 5대 0 만장일치로 기존 판결을 번복하고 브라운을 무죄석방했다고 그의 변호사가 말했다.

브라운은 피살 당시 26세로 임신 8개월이었던 아버지의 약혼녀 켈지 후크가 펜실베이니아 서부의 농촌지역에 있는 이들의 농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후 그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 후 로렌스 카운티의 소년법원을 거쳐 상소심에서도 1급 살인 한 건에 태아에 대한 살인까지 가중되어 성인으로 재판을 받을 뻔 하다가 변호사의 노력으로 소년법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최종심에서 판사들은 검찰이 브라운의 침실에서 발견했다는 엽총이 살인에 사용된 것이 아니었고 그가 총격을 하는 것을 본 증인도, DNA 증거물이나 지문도 나오지 않았으며 브라운의 옷에서도 희생자의 혈흔이나 생물학적 증거가 전혀 나온 것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판결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후크는 발견당시 뒷머리에 엽총 사격을 받아 피가 흥건한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경찰은 학교에 가기 위해 아침에 스크 버스를 타려는 어린 브라운을 용의자로 체포했었다.

11세 때 체포 당시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지금은 20세 청년이 된 브라운은 이제야 "뒤늦은 정의의 심판"을 받았다고 그의 변호사 케이트 버덕은 말했다. "우리는 그의 어린시절을 되돌려 줄 수는 없지만 뒤늦게라도 대법원에서 누명을 벗겨줘 이제부터 생산적인 새 삶을 살게 해 준 것을 반갑게 여긴다"고 그는 말했다.

인도서 17명이 7개월간 11세 소녀 성폭행

인도에서 또다시 10대 소녀에 대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청각 장애를 가진 11세 소녀이며, 가해자 17명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근교자들이었다.

18일(현지시간)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첸나이 당국은 지난 1월부터 한 11세 소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 17명의 성인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왔다고 밝혔다.

적게는 20대, 많게는 60대인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약으로 잠들게 한 다음 아파트 발진실 등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피해자가 12살 소녀라고 밝혔으며, 가해자들이 지하실, 테라스, 체육관, 공중화장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만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68살의 엘리베이터 관리자가 처음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다른 남성들을 끌어들이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야 피해자는 델리에서 가족을 방문하러 온 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으며,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6일 가해자들을 강간, 살인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美요세미티 산불 확산...여의도 24배 태워

한 해 평균 40만 명이 찾으며 미국 서부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대형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

유에스에이(USA)투데이는 18일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 13일 발화한 산불로 6일간 약 69㎢의 산림을 태웠으며, 현지의 상징인 '하프 돔'도 연기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날까지 파악된 피해 면적만 여의도 면적(2.9㎢)의 약 24배 수준이다.

캘리포니아 소방 당국에 따르면 1400명 이상의 소방관과 수십 대의 방재 헬기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산불 규모가 방대해 진화율(18일 기준)은 5%대에 머물고 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 관계자는 "요세미티 주변에 위치한 고기압 세력의 영향으로 연기가 협곡에 갇혀 있어 상공에서 소화약을 뿌려도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이어진 캘리포니아 지역 가뭄의 영향으로 건조해진 수풀 더미와 나무들은 산불 확산을 돕고 있는 상황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는 "산불이 단기간에 더 크게 번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진화 작업에 출동했던 차량이 전복해 14일 소방대원 2명이 사망했으며, 소방대원들은 주변 지형이 험악해 이동이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속도로 119긴급 출동 알림 전국 확대

소방청은 오는 28일부터 '고속도로 119 긴급출동 알림 서비스'를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속도로에서 화재, 사고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119출동 상황을 고속도로 전 광표지(VMS), 터널 비상방송, 민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알려 준다.

소방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발을 공동추진해 왔다.

양 기관은 1월22일부터 경기 지역 고속도로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해 시스템 테스트를 완료했다. 본격적으로 여름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는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가 없는 제주도는 제외됐다.

뉴스스



폭염 탈출! 연일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19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 읍영마을 비리내 폭포에서 피서객들이 폭포수를 맞으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진술 메모' 자기변호노트 써 본 피의자 67% 만족

피의자가 경찰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내용 등을 스스로 메모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6월 서울경찰청 소속 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자기변호노트를 시범운영했다. 자기변호노트는 수사를 받는 도중이나 직후에 직접 작성할 수 있다.

5개 경찰서에서 모두 1178부가 사용됐고 실제 조사 중 이용한 횟수는 298회였다. 피의자신문조사 작성 건수(7524건) 대비 15.7%가 사용됐고 조사 중 이용은 4%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용자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용자의 67%는 '노트가 혐의사실과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그 중 57%는 '재사용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용자들은 조사가 끝난 후 메모 내용을 보면서 조사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만족감을 나타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한 피의자는 "자기변호노트의 분량이 너무 많아 조사 중 이용하지는 못했지만 조사 후 노트에 내용을 기재할 수 있었다"며 "향후 재판이 진행될 때 기억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 읽기 어렵고 분량이 많은 데다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현장 수사관들은 수사관이 배포하는 것보다는 지방변호사회, 경찰 내 인권담당부서 등 중립적인 제3자가 인쇄, 배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청과 서울변호사회는 향후 자기변호노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른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 확대시범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머릿에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스펙트럼, 자폐치료, 영민 민학교